

말레이시아의 아랍어 교육에 관한 연구: 이슬람의 영향을 중심으로*

정규영**

◁ 목차 ▷

1. 서론
2. 독립 이전의 아랍어 교육
3. 독립 이후의 아랍어 교육
4. 결론

* 본 연구는 2019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글로벌인문대학 아랍어과 교수

<Abstract>

The Situation of Arabic Education in Malaysia With Focusing on Islamic Influences

Jung, Kyuyoung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situations of Arabic education in Malaysia after the inflow of the Islamic religion to Malaysia. As witnessed in the process of the early conquest and spread of Islam and Arabic Language towards the North Africa, the Fertile Crescent and Persia etc., Islam and Arabic language was definitely inseparable in Arabic education in Malaysia in the viewpoint that Arabic was the language of Koran and Koran was written in Arabic. Islamic religion was introduced to Malaysia through the commercial activities by Muslim traders around 10th century. After Islam was introduced to Malaysia, Arabic began to be taught by 'pondok' system. The situation of Arabic education in Malaysia was not always stable. At one time Arabic in Malaysia was triggered and undermined depending on the political conditions especially during the British rule. After the independence of Malaysia there was a Malayan awakening of Islamic and their Identity resulting in the support of muslims. And today Arabic language is being taught in many and various educ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different levels of schools, universities, and cottages etc.

Key Words

Arabic, Jawi, Rumi, Education, Malaysia, Islam

I. 서론

22개 아랍국가의 공용어이자 56개 이슬람 국가의 종교언어로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랍어 구사자의 수는 약 4억 2,20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Caplan, 2019). 아랍어는 1973년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와 함께 유엔의 6대 공용어 중 하나로 지정되었다. 또한 2010년에는 유네스코가 매년 12월 18일을 세계 아랍어의 날(World Arabic Day)로 선언한 바 있다(Unesco, 2010). 아랍어가 지역적 언어를 넘어 전 세계적 언어로 발전하고 있는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할 때 아랍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코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아랍어에 대한 관심과 아랍어 구사를 위한 노력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경제, 관광, 사회, 정치 분야에서 증대하는 아랍어 수요는 아랍어 학습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비아랍권 국가 특히, 이슬람권 무슬림들 사이에서는 아랍어 학습 욕구와 관심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 역시 아랍어에 대한 관심과 교육에서 이 같은 추세로부터 예외적이지 않다.¹⁾ 사실 아랍어는 말레이 사회 특히 말레이 무슬림 사회에서 중요성을 지닌 언어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아랍어의 역사는 이슬람교가 도입된 시기는 13세기 경으로 알려져 있다.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도입에 대한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 중 하나는 1301년 2월 22일 제작되어 최근에 발견된 홀루 테렝가누 지역의 바투 베르수라트 비문이다. 이 비문의 발견으로 인해 말레이시아에 이슬람이 도입된 시기가 훨씬 이전으로 소급될 수 있음이 밝혀졌다.

1) 말레이시아의 인구는 2019년 현재 32,772,100명으로 세계 42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 약 61%가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으며, 약 20%가 불교신자이다. 연방입헌군주제 국가로서 13개 주와 3개의 연방주로 구성되어 있다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이슬람의 도입 이래 아랍어는 말레이시아 무슬림들에 의해 학습되고 연구되어 왔으며 공교육 분야에서 그 위상이 계속해서 강화되어 왔다. 특히 아랍어는 말레이어 어휘에 큰 자취를 남겼고 언어적 동화 과정을 촉발시켰다. 군도에서 사용된 자바어 역시 아랍어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아직도 말레이시아에서 이른바 언어동화과정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랍어 학습과 아랍어 사용은 말레이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슬람의 전파와 말레이시아의 아랍어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일부 서구학자들은 말레이시아의 종교, 사회문화, 교육 및 언어에 이슬람이 미친 영향을 과소평가하며 냉소적으로 기술하기도 한다. 이들은 이슬람교가 말레이시아 국민들에게 준 영향은 미미한 정도에 그쳤을 뿐이며 앞으로도 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다. 독일인 동양학자 로이어(Leur, 1955)는 말레이 주민들에 대한 이슬람의 영향을 그 이전에 있었던 (동남아시아의) 인도화 과정과 결부시키기도 했다. 그는 “세계의 두 종교(이슬람과 힌두교)는 지역문화를 혼란케 하는 단지 얇은 지층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말레이 문화 연구가인 윈스테드(R.O. Winstedt) 역시 말레이 공동체 생활에서 이슬람의 중요성과 영향을 부인하는 부류에 속한다. 그는 말레이 사회에서 이슬람의 영향이 힌두교와 섞여 있다고 보았다(Winstedt, 1951). 이런 입장들의 공통점은 말레이 반도의 아랍어 전파에 이슬람이 준 영향은 부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은 이슬람과 아랍어 학습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가 존재함을 말해준다. 이런 맥락에서 본 필자는 말레이시아에서 이슬람의 유입과 아랍어 교육의 상관관계의 재고가 마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말레이시아에서 아랍어 교육이 시작된 시기 특히 공식적인 관점에서 밝히는 작업은 쉽지 않다. 어느 누구도 말레이시아에서 아랍어 교육의 초기 역사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아랍어 교육을 이슬람의 도래와 연관시키는 학자들도 있으나(Hassan, 2003). 기록과 증거에 입각하여 납득할만한 발전과정을 제시하기란 여전히 힘든 숙제로 남는다.

이 같은 상황은 말레이시아인들의 아랍어 학습에 이슬람이 미친 영향과 관련된 연구 수가 부족한데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대다수 연구들은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전파와 일반적인 이슬람 종교 교육에 관하여 더 집중한다. 이삭(Ishak, 1995)과 레드주안(Redzuan, 2005)이 행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이런 부류에 해당된다. 물론 드물긴 하지만 이슬람과 아랍어의 관계에 집중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다룬 연구들도 있다. 하지만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이슬람의 도래와 아랍어 학습 및 아랍어 교육 발전에 이슬람이 미친 영향에 대한 본 연구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상세한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 연구는 영국으로부터 말레이시아가 독립하기 이전과 독립한 이후에 이슬람이 아랍어 교육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살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관련된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되 문헌 분석은 귀납적으로 행해질 것이다. 말레이시아에서 아랍어 교육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이전과 이후에 현저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II. 독립 이전 아랍어 교육

최초로 말레이시아에 이슬람이 어떻게 도입되었는지, 그리고 도입에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른 주장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다수 서양학자들은 인도대륙에서 온 상인들에 의해 말레이 반도에 이슬람이 처음으로 소개되었다고 주장한다. 매리슨, 케네스 홀, 윈스테드(Marrison, Kenneth Hall, Winstedt) 등이 처음으로 이렇게 주장한 학자들이다. 반면, 말레이 학자들은 이슬람이 상인들은 물론 아라비아 반도에서 온 설교자들(이맘)에 의해 도입되었다고 주장한다. 서양 학자들 중에도 후자의 견해에 동조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케이저, 홀랜더, 존 크로퍼드(Keyzer, Hollander, John Crawford) 그리고 윌리엄 마스든(William Marsden) 같은 학자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Redzuan, 2005).

이슬람이 말레이 반도에 도입된 시기와 관련하여 대다수 서양사학자들은 이때가 15세기경이며 이슬람을 최초로 받아들인 주가 말라카 주라고 주장한다. Hall에 따르면 1414년 술탄 파사이(Pasay)의 딸과 결혼하기 직전에 이슬람으로 개종한 파라메스와라 첫 번째 개종자이다. 개종과 더불어 결혼한 그는 자신의 이름을 'Megat Iskandar Syah'로 개명했다(Ishak, 1995).

그러나 역사적 증거에 입각하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슬람이 말레이 반도에 도입되었음을 보여주는 다수의 증거들이 있다. 다음은 이런 몇 가지 증거들이다.

첫째, 1899년 송가이 베랑의 상부지역에 위치한 바투 베르수라트의 발견이다. 이 비석은 자바어로 이슬람법을 기술하고 있는데 연대는 히즈라역을 그레고리안력으로 환산할 때 1303년 2월 22일에 해당한다. 즉 파라메스와라가 최초로 이슬람으로 개종하기 100년 이상 전에 말레이 반도에 이슬람이 이미 존재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둘째, 1914년 켈란탄(Kelantan)에서 발견된 디나르 돈 조각이다. 디나르는 아랍세계에서 통용된 은전으로 금화인 디르함과 함께 주요한 화폐였다. 이 돈이 말레이반도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말레이 반도에서 유통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따라서 아랍 이슬람 상인들의 존재와 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돈 조각의 앞면에는 아랍어 문자로 칼리프 알무타와킬(al-mutawakkil)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AD 1181년에 해당된다.²⁾

셋째, Teluk Cik Munah, Permatang Pasir(Pekan, Pahang)에서 발견된 비문이다. 이 비문은 코란 구절과 아랍 시를 담고 있다. 또한 고인이

2) 무타와킬(822-861)의 본명은 '아부 파들 자오파르 븐 무함마드 알무타심 빌라'으로 압바스 이슬람 제국의 칼리프이다. 847년 등극하여 861년 12월 터키인 호위병에 의해 암살될 때까지 15년간 제국의 칼리프로 재위했다.

1028년 새벽에 숨을 거뒀다는 기록도 있다.

넷째, 케다(Kedah) 지역에서 발견된 몇 점의 비문들이다. 이 중에는 1962년 랑가르에서 발견된 비문들도 있다. 히즈라역을 재환산해 보면 시기적으로 AD 902년에 해당한다.

끝으로, 1136년 케다 왕(Derbar King II)이 아라비아 반도 예멘에서 온 셰이크 압둘라(Sheikh Abdullah b. Sheikh Ahmad al-Qaumiri)에 의해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건이다.

상술한 역사적 증거에 입각해 볼 때 10세기 이전까지는 이슬람이 말레이 반도에 도입되기 시작했거나 이미 전파되어 있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동시에 이 사실은 10세기경에 말레이 반도에 아랍어가 소개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말레이인들이 이슬람을 받아들였다면 이들이 이슬람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아랍어를 배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적어도 아잔(예배시간을 알리는 낭송소리), 예배, 위리드(wird; 말레이어로 알라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읽는 코란 귀절), 그리고 코란 낭송과 같은 일상적 종교행위를 위해서 아랍어 사용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슬람의 영향으로 말레이 반도에 아랍어 교육의 초기 토대가 놓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말레이 반도에서 아랍어 교육이 특정 지역에서 시작되었음을 말해주는 신뢰할만한 증거는 없으나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간에 아랍어 교육이 이슬람의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음은 확실하다. 사실 이슬람의 도입 직후 왕과 왕족, 그리고 고위관리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 말레이 반도에서 이슬람 교리교육이 시작되었다. 교육과 학습 장소는 왕궁, 모스크, 수라우(surau)³⁾, 그리고 개인 주택과 일반 가정이었다. 초기의 왕과 통치자들

3) 수라우(Surau): 수마트라(Sumatra)와 말레이 반도 일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이슬람 건축으로 신앙행위는 물론 종교교리 교육이 이곳에서 행해졌다. 수라우는 모스크와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보통 모스크보다 규모가 작으며 여성의 입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종교 교리 교육과 축제 예배 용으로 더 많이 활용된다.

은 이슬람과 관련된 종교적 지식, 경전, 종교학자, 종교적 행위, 중요한 이슬람 사건을 적극적으로 기념하고 찬양했다.(Ishak, 1995; Ismail et al., 2017).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무슬림 공동체는 아직 제도화된 교육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아랍어를 배우기 시작한다(Sakiah et al., 2015).

한편, 설교자(이슬람 종교 지도자, 쉐이크)와 무슬림 상인들 그리고 이들과 토착 말레이 주민들과의 일상적 관계 역시 아랍어 학습에 대한 필요를 증대시켰다. 그 당시 말레이인들이 사용한 많은 아랍어 어휘들이 아랍어 학습을 반증한다. 이런 어휘 중에는 술탄(sultan, 정부), 와잔(wazan, 경제와 무역), 니카(nikah, 결혼) 등이 있다(Hassan, 2003).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위해서 말레이인들은 아랍어 어휘들은 학습할 필요가 있었다.

이슬람의 말레이 반도 도입으로 말레이 언어에 많은 아랍어 단어가 유입되었고 차용어의 분야는 매우 다양했다. 다양한 분야에 차용된 단어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doa [예배], *haji* [순례], *imam* [종교지도자], *kiblat* [메카 방향], *mufti*, *nabi* [예언자], *wali* [보호자, 후견인], *fitnah* [중상 비방], *karib* [가까움], *kaum* [부족], *kerabat* [부족주의], *maruah* [위엄], *nikah* [결혼], *salam* [인사], *sedekah* [자선], *tahniah* [축하], *takziah* [조문], *adil* [공정함], *batal* [무효], *halal*, *haram*, *hakim* [재판관], *hukum* [법], *mahkamah* [법정], *wajib* [의무사항], *zalim* [박해자], *falak* [천문학], *falsafah* [철학], *hikayat* [이야기], *hisab* [유추], *ilmu* [과학], *kamus* [사전], *kitab* [책], *tabib* [의사], *takwim* [달력], *tarikh* [날자], *alam* [자연], *dunia* [세상], *haiwan* [동물], *insan* [인간], *jasad* [신체], *salji* [눈], *akal* [지성], *aman* [평화], *fabam* [이해], *fikir* [생각], *hajat* [의도], *ikhlas* [진실함], *ilham* [영감], *insaf* [자부심], *niat* [의도], *yakin* [신앙]

말레이 반도에서 기록된 문학작품이나 역사 역시 아랍어로 그 제목을 썼다. 예를 들어 살라투스 살라틴, 투호파드 알-나피스, 부스타누스 살라

틴 등(Sulalatus Salatin, Tuhfat al-Nafis, Bustanus Salatin and others: Zainal, 1992)등을 들 수 있다.

말레이어에 차용된 아랍어 어휘의 수에 관해서 학자들은 의견을 달리 한다. 무함마드 벡(Muhammad Beg, 1979)은 그 수가 약 2,000개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암란(Amranm 1987)은 1,647개라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유소프(Yusoff, 1994)는 합계가 2,260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수 천 개에 달하는 기타 파생어들을 포함시키지 않고도 이런 높은 수치에 달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차용어 수의 증가는 말레이인들이 아랍어를 학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아랍어 학습자들이 아랍어를 배우기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많은 아랍어 어휘들에 노출되었고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이슬람의 유입은 또한 말레이반도의 자위문자(Jawi, Kelanatan-Pattani) 형성에도 영향을 주었다. 자위 문자는 28개의 아랍어 문자, 5개의 페르시아어 문자, ca (ع), nga (غ), pa (ف), ga (ض) and nya (ن)과 같은 베르베르 문자들이 혼합된 문자이다. 일단 형성된 자위 문자는 말레이 반도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 말레이 언어와 문학뿐 아니라 이슬람 교육도 자위 문자를 통해 발전하고 진화했다. 1941년 이전, 거의 모든 말레이 신문들은 자위 문자로 발행되었는데 대부분 말레이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기 때문이다. 로마(Rumi) 문자로 신문을 발행하기 위한 몇 차례의 시도가 있었으나 말레이인들이 이렇게 발행된 신문들을 외국어신문으로 간주함에 따라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Redzuan, 2005).

말레이인들의 기록에서 자위어가 지닌 강력한 위상을 감지한 기독교인들은 현지인들이 쉽게 기독교 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종교자료들을 자위어로 출판하려고 했다. 1629년 앨버트 코닐리우스 레일(Albert Conelius Rayl)은 말레이어로 마가복음을 번역한다. 이 번역본은 1735년 자위어와 라틴 문자를 이용하여 쉽게 번역되었다. 한편, 기독교 선교사들은 역시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 1821년 1월 부스탄 아리핀(the Bustan Ariffin) 지를 발행하기에 이른다. 1년에 4차례 발행된 이 신문은 6판까지 발행 후 1822년 4월 중단되었다. 1887년 말레이 반도에 온 유명

한 기독교 지도자 셸라베어(Shellabear, 1862-1948)은 모든 기독교 관련 자료를 자바 문자로 기록하도록 제안했는데 이는 무엇보다 말레이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런 조치들이 말레이 언어와 자위 문자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 제안을 반기지 않았다. 그들은 말레이 반도에서 이슬람의 막강한 위상을 억제하고 그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면 오히려 로마 문자를 확대 사용해야 한다고 믿었다.

자위 문자가 형성될 때까지 이슬람의 영향은 아랍어 학습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점차적으로 말레이인들은 자위문자로 읽고 쓰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아랍어 문자와 비슷하여 학습자들에게 익숙했고 친밀했으므로 학습자들은 아랍어 문자를 잘 발음했고 잘 쓸 수 있었다.

말레이 반도에서 아랍어 학습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어났으며 흔히 종교적 영향과 관련되어 설명된다. 이와 관련하여 문스이 압둘라(Munsi Abdullahs, 1796-1854)가 말한 “우리 조상시절부터 어느 누구도 말레이어를 학습하려고 하지 않고 차라리 코란을 읽었다. 아랍어를 배우는 것이야 말로 종교와 내세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란 말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Munsi, 1974) 그의 견해야 말로 당시 말레이 주민들에게 아랍어 학습과 이슬람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해준다. 말레이 반도에서 아랍어의 중요성은 일부 기독교 선교사들도 인정한다. Shellabea는 말레이 반도에서 기독교의 전파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아랍어와 아랍문학을 기독교 선교사들이 배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무슬림과 비무슬림 모두에게 아랍어 학습에 이슬람의 영향이 컸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무슬림 사회에서 아랍어의 위상이 그 당시 매우 높았음을 말해준다.

기록상 말레이시아에서 아랍어 교육은 독립 이전에 이슬람식 숙박 기관 폰독(pondo)을 통해 시작되었다⁴⁾. 폰독 공부의 존재는 특히 17세기 파사이 왕국(Pasai Kingdom, Malacca와 Aceh) 기간에 시작된 후 (Shafie, 1984), 특히 19세기 20세기에 이르러 전통사회의 보편적인 교육

4) 폰독 페산트렌 또는 그냥 페산트렌(Pesantren)은 이슬람식 기숙학교이다. 자바어 폰도칸(pondokan)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함.

제도가 되었다. 아랍어는 폰독 교육 제도에서 핵심 교육 과목 중 하나였다. 교육 내용 면에서는 나흐우(Nahw, 통사론), 사르프(Sarf, 형태론)에 더 치중했으며 발라가(Balagha, 수사학), 문학, 작문 등의 교육은 행해지지 않았다.

폰독은 일종의 오두막 기숙사이며 이를 통한 아랍어 교육에서 이슬람의 영향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런 기관들에서 이슬람 설교자와 종교 학자들을 양성하였기 때문이다. 기숙사 학생들은 종교서적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먼저 아랍어를 배우게 되었다. 오두막 제도 하에서는 Matn al-Ajurrumiyah, Mukhtasar, Mutammimah, Sharh Ibn cAqil, Ashmuni, Mughni al-Labib과 같은 아랍어 문책들이 주교재로 사용되었다.(Hamdan, 1985) 이런 책들은 아랍세계에서 문법교재로 정평이 난 책들이었다. 다만 교육방식으로는 오늘날과 같이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교육 기자재 없이 주로 책에 의존했으며, 칠판에 쓰기보다는 말하는 교육이 주를 이루었고 암기는 학생들이나 교수 모두에게 중요한 학습 방법이었다.

한편, 이슬람 교육 기관의 발전과 성장을 가로막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었다. 1854년 대부분 코란 학교는 영국에 의해 전적으로 통제되는 행정으로 바뀌었다. 교과과정은 수정되어 이전과 다르게 로마 문자, 자위 문자(아랍어 문자가 주가 된 문자), 수학, 보건, 미술, 그리고 종교 과목을 가르치게 되었다. 점진적으로 수업방식도 바뀌어 학교 수업 시간은 오전과 오후 수업 시간대로 나뉘었다. 오전 수업은 비종교적 교과에 치중했으므로 “말레이 학교”라고 불렸다. 반면 오후 수업은 종교 교과에 치중했으므로 ‘코란 학교’라고 불렸다.

세속적 교과를 담당한 교사들은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고 재정적 지원을 받았지만 종교 교과목을 담당한 교사들은 학부모가 지불하는 수업료 성격의 지원금과 사적인 재정지원으로 운영되었다.(Ishak, 1995). 이 같은 변화는 당연히 무슬림들에게 불리한 조건이었다. 코란 학교 건설을 위한 토지는 없어졌고 종교적 수업에 대한 재정지원 역시 소홀해졌다. 과거에 기초 교과목이었던 이슬람과 코란 교과목은 보충교과목으로 전락하여

부수적으로만 교육되었다. 종교적 교육은 비종교적 교육(학문교육)과 분리되는 등 교육이 양면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은 결과적으로 코란 학교에서 아랍어교육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III. 독립 이후의 아랍어 교육

1957년 영국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한 이후 말레이시아에서 아랍어의 위상과 중요성은 훨씬 더 축소되고 소홀해졌다. 이슬람 교육 또한 비슷한 운명을 맞이했다. 이것은 영국식민통치의 유산이자 결과였다. Ishak(1995)에 따르면, 오두막 학교의 쇠퇴 또한 이슬람 말레이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았으며 이 상황은 1951년 UMNO 올라마 위원회에서 기원한 말레이시아 이슬람당(Islamic Party Se Malaysia, PAS)이 결성 때까지 지속되었다. UMNO 측은 친 PAS 경향인 “tok guru”가 이끄는 오두막에 자신들의 자녀들은 보내고 싶지 않았고 그 역도 사실이었다. 더 불행하게도 “tok guru” 즉 종교 교사들의 사망 이후 오두막집들도 위축되기 시작했다.

70년대 들어 이른바 말레이시아의 이슬람 부흥 노력으로 알려진 큰 물결이 일어났다. 이슬람 공동체는 이슬람 교육이 재정립되길 원했으므로 종교적 교과목들이 학교에 도입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슬람고등교육기관들(예를 들어, Malaya Islamic College-1955, University of Islamic Studies Department-1959, Nilam Puri Islamic Higher Education Foundation, 1965, National University of Malaysia-1970, Islamic Teaching College-1980, Religious College Sultan Zainal Abidin-1980, International Islamic University Malaysia-1983)들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마찬가지로 종교적 학문의 전달수단으로서 아랍어 교육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아랍어가 정부와 사부문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됨에 따라 국가교육의 주류에 편승한 채 동력을 얻기 시작했다. 정부 교육 체도를 통해 아랍어

는 초등학교, 기숙사학교, 종교학교, 종교지원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 정식 교과목 또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교육되었다. 아랍어 교과과정이 계속 개편되었고 평가되었으므로 학생들에게는 아랍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아랍어에 대한 수요 증가는 상술한 학교에서 지원자 수가 입학정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시험성적이 우수한 많은 학생들도 입시에 탈락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슬람 국가로서 말레이시아의 위상은 아랍어 교육 강화와 결부되었고 새로운 업데이트에 전폭적으로 개방되었다. 이 가운데 이슬람교육과학문화기구, Islamic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ISESCO)에 파견되어 온 아랍어 전문가들이 1986년에 의사소통접근방식을 이용한 아랍어 교과서를, 1988년에 교사용 지침서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제공했다.

2003년 말레이 정부가 시작한 제이-까프(The Jawi, Al-Qur'an, Arabic and Fardu Ain, j-QAF) 프로그램은 무슬림 학생이면 모두 코란의 언어인 아랍어를 학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이슬람의 가르침과 아랍어를 배울 기반은 더욱 공고하게 제공되었다. 아랍어는 제이-까프의 4구성요소 중 하나였으나 다른 세 요소들도 언어 습득에 큰 공헌을 하였다. 코란이 아랍어로 교육된 반면, 자위어 수업은 아랍어 문자로 쓰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파르두 아인(Fardu Ain) 또한 아랍어 단어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일조했다. 이 모든 활동들은 궁극적으로 말레이 학생들의 언어습득 기술 특히 아랍어구사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상술한 교육기관 외에도 아랍어 교육을 하는 다른 여러 기관들이 있다. 예를 들면, 마라 주니어 과학대학(the Mara Junior Science College), 각급 사립학교, 마드라사(madrasahs), 그리고 오두막학교(cottages) 등이 이에 속한다. 또 이슬람아동보육 및 투나스 이슬람 센터(the Islamic Children's Nurseries and Tunas Islam Center)와 같은 유치원급 교육기관에서도 아랍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모스크에서도 아랍어 교육이 제공되며 일반인들은 기꺼이 사비를 들여 아랍어를 배우려 한다.

이 모든 현상은 말레이시아 무슬림 사이에서 이슬람에 대한 자각이 증가한 결과이다.

IV. 결론

말레이시아에서 아랍어 교육이 실시된 것은 이슬람의 유입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 처음에는 간접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이슬람의 확산과 더불어 공식적이고 직접적 성격으로 변했다. 아랍어 학습과 교육의 성격 변화는 이슬람의 영향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특히 예배할 때 코란의 언어인 아랍어를 알아야만 했고, 아직 번역판이 없던 시기에 코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슬림들에게 아랍어 학습이 매우 중요했다.

이슬람의 영향은 말레이시아에서 아랍어 교육의 공식적인 촉진과 장려 정책으로 나타났다. 초기의 아랍어 교육은 이슬람 선교사와 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출발했다. 선교와 학자 모두 종교서적을 이해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아랍어 학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이를 위해 아랍세계에서 유명한 문법책을 도입하여 교재로 사용했다. 아랍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일반인들의 아랍어 학습으로 토착말레이어에 다수의 아랍어 어휘가 차용되었고 말레이어의 동화가 심해졌다.

이슬람과 아랍어의 동반성장은 세속주의 입장을 견지하던 영국식민지 통치시대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경험했다. 1854년부터 영국 식민통치자들은 코란학교를 통제하고 교과과정을 세속적으로 수정하기 시작한다. 그 결과 로마 문자, 자위 문자(아랍어 문자가 주가 된 문자), 수학, 보건, 미술 등이 교육되었고 상대적으로 이슬람과 아랍어 교육은 쇠퇴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특히 1970년대 이후 이슬람교에 대한 자각과 각성이 일어나면서 아랍어 교육은 더 강화되고 있다.

주요어

말레이시아, 아랍어, 이슬람, 자위어, 루미어

<참고문헌>

- Amran, K.(1987). *Arabic Vocabulary in Malay*. Bangi: Penerbitan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 Beg, M. A. J.(1979). *Arabic Loan Words in Malay: A Comparative Study*. Kuala Lumpur: University of Malaya Press.
- Caplan, Neil(2019). *The Israel-Palestine Conflict: Contested Histories*. Hoboken, NJ: John Wiley & Sons.
- Hamdan, H.(1985). The Role of Education in Islam Masjid Muhammad Kota Beginner Abad Ke. In N.S. Karim, and W. A. Yusuf, eds. *Kelantan Dalam Perspektif Sosio-budaya*. Kuala Lumpur: Jabatan Pengajian Melayu. Universiti Malaya. 150-173.
- Hassan, B. A.(2003). *Arabic in Teaching Malaysia: Between Tradition and Innovation*. Proceedings of Islamic Education Discourse.
- Ishak, A.(1995). *Islamic Education and Its Influence in Malaysia*. Kuala Lumpur: Dewan Bahasa & Pustaka.
- Ismail M. M., Bushrah, B., Kamarul, A.J., Ajmain, J. S., and Azhar, M.(2017). Building the Potential of Mosques as an Islamic Educational Institution and Society. *TAMU Journal* 3.2. 46-58.
- Leur, Jacob Cornelis(1955). *Indonesian Trade and Society*. The Hague and Bandung: Van Hoeve.
- Redzuan, Mohammad Othman(2005). *Islam and the Malay Community*. Kuala Lumpur: Penerbit Universiti Malaya.
- Sakiah, W.N., A. G. Kamarulzaman, and A. L. Maimun(2015). Environmental Learning Entrepreneurship Background in Arabic J-QAF. *Online Journal of Islamic Education* 3.1. 1-7.

Shafie, A. B.(1984). Towards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ottage Education Systems in Malaysia. *Jurnal Pendidikan Islam* 2.1. 24-44.

Winstedt, Richard Olaf(1951). *The Malay Magician: Being Shaman, Saiva and Sufi*.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Zainal, A. A. W.(1992). *Malaysia: Heritage and Development*. Kuala Lumpur: Dewan Bahasa & Pustaka.

Name	Jung, Kyuyoung
Belong	Dpt. of Arabic, Chosun University
E-mail	kyjung@chosun.ac.kr

투고일	2020/04/24	심사일	2020/05/26
게재확정일	2020/06/13		